

북한 시각에서 바라본 국제 사이버안보질서: 정책담화모형(NPF)을 중심으로

김근혜* · 박규동**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논의 및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일간지에 나타난 정책담화(policy narrative)를 분석함으로써 북한당국이 국제 사이버안보 질서를 해석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이용하여,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사설과 보도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사이버안보 질서 내 행위자들을 악당과 피해자의 이분법적 기준으로 해석하였으며, 악당으로 분류하는 행위자들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묘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국제 사이버안보 질서에 대한 시각은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사이버안보 의제

를 전통적으로 군사 안보 질서를 주도해온 강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뿐, 사이버안보 의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전 세계 사이버안보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안보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며, 향후 북한의 사이버안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사이버안보, 북한, 로동신문, 민주조선, 정책담화 모형(NPF)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제1저자

** 콜로라도 대학교(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행정대학원(School of Public Affairs) 박사과정, 공동저자

I. 서론

북한이 사이버작전(cyber operation)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몇몇 사이버 사건으로부터 드러나면서 북한은 전 세계 사이버공간에서 중요한 위협 행위자로 부상해 왔다.¹ 2003년 이래로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대남 사이버공격은 계속해서 발생했으며² 한국은 북한 사이버공격의 최대 피해국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소니 픽처스(Sony Pictures) 해킹 사건³이후에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⁴ 2017년 워너 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사태⁵에서 보이듯 대규모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할 때 마다 북한은 주요 배후로 지목받아 왔다. 이렇듯 사이버공간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 가능성의 부상으로 인해 북한 사이버안보 관련 연구는 자연스럽게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 혹은 공격기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측면이 있다. 상대적으로 북한이 사이버공간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국제 사이버안보환경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입장은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은 간접적이고 미진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담화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경험적 토대를 제공하는⁶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 NPF)을 이용하여 21세기 신 안보 의제로 떠오른 사이버안보⁷가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담화로 형성되는지 분석함으로써 국제 사이버안보질서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당국은

¹ Jun, J., LaFoy, S., & Sohn, E. "North Korea's cyber operations: Strategy and responses," Center for Strategies & International Studies, (December, 2015), p. 4.

² 대표적으로 2003년 1.25 대란, 2009년 7.7 디도스 공격, 2011년 3.4 디도스 공격, 2011년 농협전산망 마비, 2013년 3.20 사이버테러, 6.25 사이버테러,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2014년 한국 수력원자력 해킹, 2017년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공격, 2018년 평창올림픽 사이버공격 등이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2>를 참고할 것.

³ <부록2> 참고

⁴ 황지환, "북한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반도: 비대칭적, 비전통적 갈등의 확산," 『동서연구』, 제29권 제1호 (2017), p. 141.

⁵ <부록2> 참고

⁶ Shanahan, E. A., Jones, M. D., McBeth, M. K., & Lane, R. R., "An angel on the wind: How heroic policy narratives shape policy realities," *Policy Studies Journal*, vol. 41 no. 3 (2013), p. 453.

⁷ 사이버안보(cybersecurity)는 용어의 범위나 정의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는 사이버안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안보와 국가비밀을 보호하고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핵심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것.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담화를 어떻게 구성하여 전달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북한당국의 정책적 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자⁸ 사상적 무기⁹ 알려진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신문기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담화의 구성요소와 구성전략의 조합방식을 분석한다. 둘째, 북한이 사이버공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는 무엇인가? 정책신념은 특정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에 대해 가지는 가치와 믿음의 집합으로 쉽게 변화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⁰ 행위자들은 정책과정에서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책담화 속에 그들의 신념체계를 함께 보여 준다.¹¹ 본 연구는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북한당국이 사이버공간에 대해 가지는 신념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첫째, 북한 사이버안보 관련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한계점을 짚어본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틀인 NPF의 주요 개념과 이론적 접근방식을 설명한다. 셋째, 본 연구가 수집 자료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분석틀과 연구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설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북한의 사이버안보 관련 연구

2010년을 기점으로 군사전략, 국제관계, 법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의 사이버안보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국내의 북한 사이버안보 관련 연구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주제로 북한의 사이버전력 분석이다. 배달형(2011),¹² 조성렬(2013),¹³ 강정호 외(201

⁸ 김원태, “북한 로동신문의 언론이념과 대중설득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14권 제3호 (2010), p. 252.

⁹ 김경모, “북한신문의 국제뉴스 내용분석 당 대외정책과 국제정세선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1권 (2005), p. 12.

¹⁰ Shanahan, E. A., Jones, M. D., McBeth, M. K., & Lane, R. R. “An angel on the wind: How heroic policy narratives shape policy realities,” pp. 460~461.

¹¹ *Ibid.*, pp. 460~461.

¹² 배달형, “국가 군사 전략급 수준에서 북한 사이버위협과 한국군의 대응 방향,” 『전략연구』, 제52권 (2011), pp. 147~174.

¹³ 조성렬,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 (2013), pp. 119~147.

6)¹⁴는 전쟁수행 관점에서 북한의 사이버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했다. 최선우와 류채영(2012)¹⁵은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게 된 역사적 배경, 전술 양상, 조직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신충근과 이상진(2013)¹⁶은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자행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분석을 통해 그 특징과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임종인 외(2014),¹⁷ 김인수 외(2015)¹⁸는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을 분석하여 북한이 한국에 충분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이버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대성 외(2016)¹⁹도 북한의 사이버위협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북한이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전의 양상을 전망하였다.

두 번째는 북한이 전개한 대남 사이버공격과 한국의 대응 방식에 관한 연구이다. 김두현(2014)²⁰과 박휘락(2014)²¹은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태세를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군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영도와 정기석(2016),²² 김윤영(2016),²³ 정민경 외(2016),²⁴ 김호중 외(2018),²⁵ 엄응용과 김효진(2018),²⁶ 정태진(2018)²⁷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의 특징을 분석하고 한

¹⁴ 강정호 외, “국의 주요국과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전략 및 기술 비교분석을 통한 대응 방향,”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3권 제4호 (2016), pp. 287~298.

¹⁵ 최선우·류채영,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6권 (2012), pp. 212~239.

¹⁶ 신충근·이상진,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전략 분석 및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제13권 제4호 (2013), pp. 201~226.

¹⁷ 임종인 외, “북한의 사이버전력 현황과 한국의 국가적 대응전략,” 『국방정책연구』, 제29권 제4호 (2014), pp. 9~45.

¹⁸ 김인수·크마르마, “북한 사이버전 수행능력의 평가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pp. 117~148.

¹⁹ 이대성 외,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한 분석과 전망,” 『융합보안논문지』, 제16권 제5호 (2016), pp. 11~16.

²⁰ 김두현,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분석과 대응 방안 고찰,”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2호 (2014), pp. 1~10.

²¹ 박휘락,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 전략,” 『전략연구』, 제57호 (2013), pp. 273~302.

²² 정영도·정기석,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16권 제6호 (2016), pp. 43~50.

²³ 김윤영,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대응 방안 연구: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2016), pp. 241~276.

²⁴ 정민경 외,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15권 제1호 (2016), pp. 67~79.

²⁵ 김호중·김종하, “대북 사이버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사이버전 대비를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제18권 제3호 (2018), pp. 123~132.

²⁶ 엄응용·김효진,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전략,”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2호 (2018), pp. 151~176.

²⁷ 정태진, “북한사이버테러능력 변화와 대응전략 방안연구,” 『한국테러학회보』, 제11권 제3호 (2018),

국 정부의 대응 전략 수립 시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이정석과 이수진(2015)²⁸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한국의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정준현(2016)²⁹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법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는 북한의 사이버위협을 학술적·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황지환(2017)³⁰은 북한의 사이버위협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고, 차정미(2019)³¹는 북한의 사이버위협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안보정세가 사이버공간에서 유사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박노형과 박주희(2019)³²는 북한사례 분석을 통해 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 작전 수행에 대하여 국가주체의 국가책임 귀속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분석하였다.

국외연구의 경우 대부분 2014년에 발생한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을 중심으로 북한의 사이버전력을 평가하거나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페어킨(Toby Feakin)(2013),³³ 해거드(Stephan Haggard)와 린제이(Jon R. Lindsay)(2015)³⁴는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의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 사이버역량의 성장 가능성을 논의한다. 화이트(Christopher Whyte)(2016)³⁵와 샤프(Travis Sharp)(2017)³⁶는 북한의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을 사이버 강제성(cyber coercion)³⁷ 관

pp. 113~134.

²⁸ 이정석·이수진,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방 사이버전 수행 발전방향,”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2권 제4호 (2015), pp. 319~336.

²⁹ 정준현,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총력적 대응 체계를 위한 법제방향,” 『성균관법학』, 제28권 제4호 (2016), pp. 23~51.

³⁰ 황지환, “북한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반도: 비대칭적, 비전통적 갈등의 확산,” 『동서연구』, 제29권 제1호 (2017), pp. 139~159.

³¹ 차정미,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 사이버위협의 부상: 한국 사이버안보에의 함의,” 『통일연구』, 제23권 제1호 (2019), pp. 43~93.

³² 박노형·박주희, “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국가책임법상 귀속: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93호 (2019), pp. 1~38.

³³ Feakin, T., “Playing blind-man’s buff: estimating North Korea’s cyber capabi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2 no. 2 (2013), pp. 63~90.

³⁴ Haggard, S., & Lindsay, J. R., “North Korea and the Sony hack: Exporting instability through cyberspace,” *Analysis From the East-West Center*, No. 17 (2015), pp. 1~8.

³⁵ Whyte, C., “Ending cyber coercion: Computer network attack, exploitation and the case of North Korea,” *Comparative Strategy*, vol. 35 no. 2 (2016), pp. 93~102.

³⁶ Sharp, T., “Theorizing cyber coercion: The 2014 North Korean operation against Son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0 no. 7 (2017), pp. 898~926.

³⁷ 국제관계연구에서 강제성(coercion)은 경쟁자 혹은 파트너 국가의 행동변화를 강요하는 것이며 국가의 강제적 능력으로는 군대의 사용, 외교적 압력, 사회·경제적 압력 등이 있다. 사이버 강제

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북한 사이버안보 관련 기존 연구들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자료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국내외의 언론자료, 인터넷 보도자료, 기존문헌과 같은 2차 자료에 의존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공 자료에서 얻은 정보에 연구를 의존 할 때의 가장 큰 위험은 정보의 부정확성, 허위 정보의 의도적 유포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³⁸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은 북한 사이버안보 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축소시키고 비슷한 관점의 연구결과 양산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대부분의 연구가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 혹은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의 사건경과와 공격기술을 분석·평가하는데 집중 할뿐 북한당국이 사이버안보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 방식이 어떻게 북한의 전략·정책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탐색적 접근으로써 북한 매체에 나타난 텍스트를 내용분석 함으로써 그동안 다루어 지지 않았던 북한이 복잡한 사이버안보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과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 과정의 주요 이론적 분석틀 중의 하나인 NPF를 적용하고자 한다.

2. 정책담화모형 (Narrative Policy Framework: NPF)

가. 정책담화 (Policy Narrative)

정책담화란 무엇인가? 피셔(Fisher)³⁹는 모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은 이야기(story)의 형태를 취한다고 정의한다. 이야기의 목적은 이야기꾼(story teller)과 청중(audience)사이에서 언급된 특정 사건이나 행동에서 사회적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다.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자는 원하는 정책결과를 얻기 위해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 담화를 구성하는 이야기꾼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현재의 정책 상황을 유지 혹은 변화시켜 청중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책담화를 전략적으로 생산한다. 이러한 정책담화는 청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 명확한 담화전략과 대중을 설득시킬 정책신념이 필요하며 연설, 소식지, 보도자료, 뉴스기사 등으로 존재한다.⁴⁰ 한

성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디지털 무기를 사용하려는 국가들을 강제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Whyte, *Ibid.*, pp. 94~97).

³⁸ Jun, J., LaFoy, S., & Sohn, E, "North Korea's cyber operations: Strategy and responses." p. 2.

³⁹ Fisher, W. R., "The narrative paradigm: In the beginning.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5 no. 4 (1985), pp. 74~89.

편, 정책과정에서 청중은 이야기꾼인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정책담화에 영향 받길 원하는 시민 혹은 또 다른 이해관계자이다.

NPF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던 연구결과⁴¹를 토대로 정책행위자들이 생산하는 담화가 어떻게 정책과정 혹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연구모형이다.⁴² NPF는 정책담화가 세 가지 수준에서 작동한다고 본다. 첫 번째는 미시적 수준(micro level)으로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이 수준은 개인의 선호와 인식이 담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개인이 어떻게 담화를 형성하는지가 주된 관심사이다. 두 번째는 중시적 수준(meso level)으로 분석단위는 정책행위자(그룹, 연합, 조직)이다. 이 수준에서는 정책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떠한 담화를 구축하고 전달하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은 거시수준(macro level)으로 담화가 제도, 사회, 문화규범에 스며드는 것으로 본다. 거시수준에서 담화는 문화와 제도의 안정성 또는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⁴³ 또한, NPF는 정책담화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⁴⁴ 첫째, 정책행위자가 특정정책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과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담화 내에서 등장인물이 적어도 한 명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그저 사실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정책문서와 정책행위를 야기하는 정책담화와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한편, <그림 1>에서 보이듯이, 일반적으로 NPF를 활용한 연구들은 NPF를 실증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먼저 연구의 분석수준을 설정한 후, 이에 일치하는 가설 혹은 명제를 세우고, 담화형식(narrative form)과 담화내용(narrative content)을 조작화(operationalization)하여 연구를 설계한다.

⁴⁰ McBeth, M. K., Shanahan, E. A., Hathaway, P. L., Tigert, L. E., & Sampson, L. J., "Buffalo tales: interest group policy stories in Greater Yellowstone," *Policy Sciences*, vol. 43 no. 4 (2010), p.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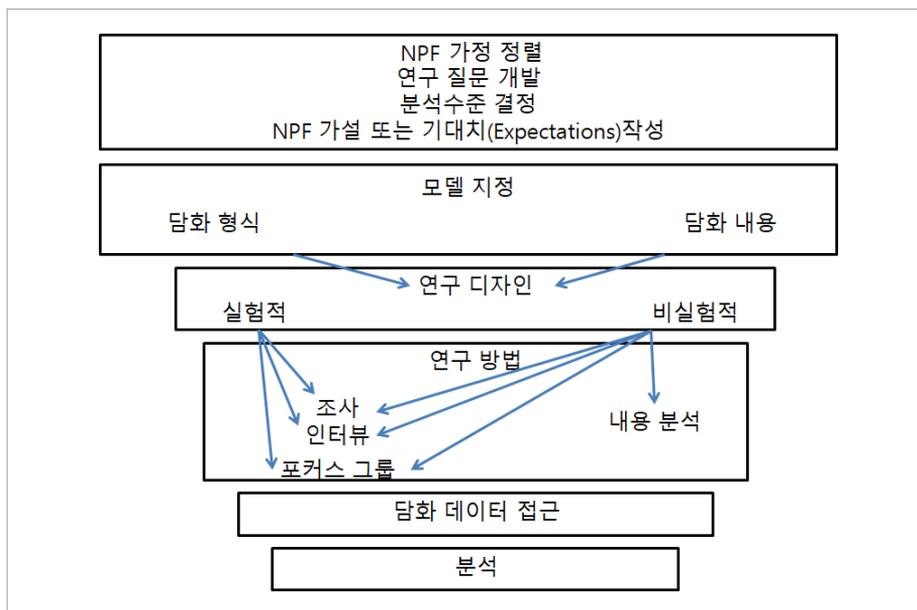
⁴¹ NPF 학자들은 담화를 연구한 기존 이론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여론을 설득할 때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논리적 설명보다는 잘 짜여진 이야기(story telling)가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 둘째, 기존 이론들은 담화의 중요성은 인지하였지만 담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내려는 노력은 소극적이었다. 셋째, 담화는 특정 집단의 신념체계와 강력하게 연계된다 (한중현, "정책담화모형을 통한 정책갈등연구: 에너지전환정책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글로벌 융합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pp. 21~22).

⁴² Shanahan, E. A., Jones, M. D., McBeth, M. K., & Lane, R. R., "An angel on the wind: How heroic policy narratives shape policy realities," p. 461.

⁴³ Shanahan, E. A., Jones, M. D., & McBeth, M. K., "How to conduct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study,"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55 no. 3 (2018), p. 3.

⁴⁴ Shanahan, E. A., Jones, M. D., McBeth, M. K., & Lane, R. R., "An angel on the wind: How heroic policy narratives shape policy realities," p. 457.

〈그림 1〉 정책담화모형(NPF)의 연구설계



자료: Shanahan, E. A., Jones, M. D., & McBeth, M. K., "How to conduct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study,"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5 no. 53 (2018), p. 2.

나. 담화요소 (Narrative Elements)

NPF의 정책담화는 담화요소, 담화전략, 정책신념과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먼저, 담화요소는 서술자의 정책 선호도를 보여주는 이야기의 서술 구조로 등장인물, 플롯, 해결책, 증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⁴⁵ 등장인물(character)은 정책담화의 내용을 채우는 행위자이다. 개인, 단체, 기관, 특정 그룹들이 등장인물로 표현되며⁴⁶ 크게 영웅, 악당, 피해자 세 가지 범주로 분류 된다.^{47, 48} 영웅은 정책 문제를 잠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묘사되며 악당은 정책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이

⁴⁵ *Ibid.*, p. 458.

⁴⁶ Shanahan, E. A., Jones, M. D., & McBeth, M. K., "How to conduct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study," p. 4.

⁴⁷ Jones, Michael D., & Mark K. McBeth,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Clear Enough to Be Wrong?" *Policy Studies Journal*, vol. 38 no. 2 (2010), p. 341.

⁴⁸ 그 외에 NPF에서 거론되는 등장인물은 채택된 정책대안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자'(beneficiary), 영웅들과 힘을 합치는 '동맹자'(allies), 그리고 악당과는 다른 주체이지만 정책에는 반대하는 '적'(opponents) 등이 있다(Shanahan et al., "How to conduct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study.").

다. 피해자는 악당에 의해 혹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체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플롯(plot)은 등장인물의 행위를 인과관계로 설명함으로써 서술의 타당성을 제공한다. 기존 NPF 연구들은 스톤(Deborah Stone)⁴⁹의 방식을 채택하여 플롯을 쇠퇴(plot of decline)와 통제(plot of control)로 분류한다. 쇠퇴 플롯은 상황의 악화(열세, story of decline), 상황의 끈적함(교착상태, stymied progress), 예상과 반대되는 진행(change is only an illusion)으로 구분되며 통제 플롯은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하여 무기력한 상태(story of helplessness and control), 희망의 여지를 두거나 상황을 비틀어서 묘사하는 음모론적(conspiracy)관점, 피해자를 비난(blame the victim)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⁵⁰ 또한, 정책담화는 특정 문제 혹은 갈등에 대하여 정책적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다.⁵¹ 일반적으로 이러한 해결책은 수혜자를 만들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웅의 행동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많은 정책담화는 직접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예: 법률개정이나 규정변경) 혹은 정책에 대한 견해(해당 정책의 아이디어가 좋다/ 나쁘다)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친다.⁵² 끝으로, 정책담화는 특정 그룹이 원하는 정책성과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적 사실(science) 혹은 증거(evidence)를 인용하기도 한다.

다. 담화전략 (Narrative Strategies)과 신념체계 (Belief System)

담화전략은 서술자가 정책 과정에 존재하는 갈등을 의도적으로 심화 또는 완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정책현실을 본인의 의도대로 재형성하여 갈등관계에 있는 행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NPF 담화전략은 인과메커니즘(causal mechanism), 악의적 상대비방과 호의적 자기선전(devil and angel shift)등이 대표적이다.^{53, 54} 먼저 인과메커니즘은 등장인물을 통해 정책 사안에

⁴⁹ Stone, Deborah,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2nd edition, (New York: W W Norton & Co Inc, 1997), pp. 138~145.

⁵⁰ Shanahan, E. A., Jones, M. D., McBeth, M. K., & Lane, R. R., "An angel on the wind: How heroic policy narratives shape policy realities," p. 458.

⁵¹ Shanahan, E. A., McBeth, M. K., & Hathaway, P. L., "Narrative policy framework: The influence of media policy narratives on public opinion," *Politics & Policy*, vol. 39 no. 3 (2011), p. 375.

⁵² Shanahan, E. A., Jones, M. D., & McBeth, M. K. "How to conduct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study," p. 5.

⁵³ *Ibid.*, pp. 5~6.

대한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전략으로 스톤⁵⁵의 분류방식에 따라 기계적(mechanical), 의도적(intentional), 우발적(accidental), 비의도적(inadvertent)관계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의도적 메커니즘의 경우 악당의 목적에 따라 인과관계가 발생한다. 그러나 우발적 메커니즘의 경우 인과관계가 우연히 발생했기 때문에 악당의 역할이 완화되고 원인을 악의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⁵⁶ 악의적 상대비방과 호의적 자기선전은 정책토론에서 논점을 다루는 담화전략이다.⁵⁷ 악의적 상대비방은 악당으로 묘사되는 상대방의 힘을 과장하면서 동시에 서술자의 힘을 과소평가하여 서술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다른 신념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호의적 자기선전은 서술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으로써 스스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전략이다.⁵⁸

한편, 신념체계는 담화의 도덕적 나침반으로 묘사되며⁵⁹ 개인, 그룹, 연합,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또는 믿음의 집합이다.⁶⁰ 신념체계는 가치지향성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NPF 학자들은 정책적 신념이 집단의 기본적 가치나 규범적 입장을 대변한다고 본다.⁶¹ 본 연구는 <표 1>과 같은 NPF 분석틀을 바탕으로 중시적 수준의 정책담화의 역할을 분석한다.

⁵⁴ 갈등의 범위(scope of conflict)와 비용분석(cost-benefit)도 NPF의 대표적인 담화전략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전략으로 설정한 두 가지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anahna et al. (2013, 2018)를 참고할 것.

⁵⁵ Stone, Deborah,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pp. 138~145.

⁵⁶ Shanahan, E. A., Jones, M. D., & McBeth, M. K., "How to conduct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study," p. 6.

⁵⁷ Heikkila, T., Weible, C. M., & Pierce, J. J., "Exploring the policy narratives and politics of hydraulic fracturing in New York," in *The science of stories: Applications of narrative policy framework*, Michael D. Jones, Elizabeth A. Shanahan, & Mark K. McBeth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pp. 185~205.

⁵⁸ Shanahan, E. A., Jones, M. D., McBeth, M. K., & Lane, R. R., "An angel on the wind: How heroic policy narratives shape policy realities," p. 460.

⁵⁹ *Ibid.*, p. 458.

⁶⁰ *Ibid.*, p. 459.

⁶¹ Sabatier, P. A., & Jenkins-Smith, H. C.,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 Assessment," in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Sabatier P.A.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9), p. 117.

〈표 1〉 정책담화모형(NPF)의 담화 분석방법

구분		내용	북한 사이버안보 사례 (『로동신문』)		
담 화 요 소	등장 인물	영웅	정책문제의 잠재적 해결사	로씨야 는 이러한 복다소동을 체질화된 반로씨야적태도의 발현으로 묘사하면서 미국을 비난해 나르고 있다. (『로동신문』 2017년 1월 22일, 6면)	
		악당	정책문제를 일으키는 실체	미국 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싸이버그격 혐의를 들쭉워 입의 시각에 군사적 행동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동신문』 2014년 6월 24일, 6면)	
		피해자	악당에 의해 피해를 입는 자	미국 이 이란을 대상으로 싸이버그격을 벌리고 있다고 한다. (『로동신문』 2019년 7월 16일, 6면)	
	쇠퇴	열세	(상황이 좋았다가) 점점 악화됨	교착상태 : 싸이버그공간을 패권주의야망에 썩여려는 미국의 광기는 극도에 달하고 있다. (『로동신문』 2017년 1월 22일, 6면)	
		교착상태	상황의 끈적함		
		반대되는 진행	모두의 예상과 반대로 진행됨		
	플롯	통제	무력한 상태	나쁜 상황이지만 희망의 여지를 둠	음모 : 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싸이버그격 혐의를 들쭉워 입의 시각에 군사적 행동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동신문』 2014년 6월 24일, 6면)
			음모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야기기를 비틀어 묘사	
			피해자 비난	운명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를 탓함	
	해결책/대안		전형적으로 정책 서술에서 정책적 해결책으로, 종종 행동요구로 귀결됨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앞에는 인터넷을 건전한 사상과 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로동신문』 2018년 2월 17일, 6면)	
증거	주장을 지지	증거/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성격	주장을 반박 : 미국은 지금도 <쓰니 픽쳐스>영화 제작보급사에 대한 싸이버그격을 우리나라가 하였다고 국제사회에 집요하게 류포시키며 우리에게 대한 제재소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 그러나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하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다. (『로동신문』 2015년 1월 29일, 6면)		
	주장을 반박				
	사실적 근거				
담 화 전 략	인과 관계	기계적 인과	의도하지 않은 조치로 의도한 결과를 유도	우발적인과 : ~그러면서 이것을 우연한 일치로 볼 수 없다고 평하면서 스노덴사건은 중국으로부터 미국정보기관이 랭전중식 후 당한 첫 대 참패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로동신문』 7월 8일, 6면)	
		의도적 인과	의도한 조치로 의도한 결과를 유도		
		우발적 인과	의도하지 않은 조치로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옴		
		비의도적 인과	의도적 조치를 했으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옴		

구분		내용	북한 사이버안보 사례 (『로동신문』)
악의적 상대 비방, 호의적 자기 선전	악의적 상대비방	악당의 능력을 강조, 과장 함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사이버공간의 가장 악 랄한 파괴자, 사이버테러의 원흉이다. (『로동신 문』 2015년 6월 9일, 6면)
	긍정적 자기선전	자신의 집단 혹은 연합의 능력을 강조	력사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온갖 위협공갈과 압 박, 제재를 받으며 살아왔다. 그런 속에서도 우 리는 자기 할 바를 다하여 왔다. (『로동신문』 2015년 1월 29일, 6면)
신념체계		개인, 집단, 연합, 혹은 사 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 는 신념의 집합체	사이버공간 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방 면에 걸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범죄공 간으로 되고 있다. (『로동신문』 2019년 7월 16일, 6면)

자료: Shanahan, E. A., Jones, M. D., McBeth, M. K., & Lane, R. R., "An angel on the wind: How heroic policy narratives shape policy realities," *Policy Studies Journal*, vol. 41 no. 3 (2013), pp. 455~461; Shanahan, E. A., Jones, M. D., & McBeth, M. K., "How to conduct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study,"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55 no. 3 (2018), pp. 4~6을 참고하여 재구성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본 연구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북한의 정책담화를 분석하기 위해 북한 일간지의 사실과 보도기사를 수집하였다. 북한의 대표 저널리즘 이론서로 알려져 있는 ‘신문학’에 따르면 북한의 신문은 당의 사상적 무기이자 인민을 교양하고 조직을 동원하기 위한 선전·선동 수단으로⁶² 북한당국의 정책적 입장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북한신문은 북한당국에서 발행하는 당의 기관지이며 당국의 방침을 북한주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⁶³ 국제 보도의 경우에도, 국제정세를 전달하는 정보전달의 목적이 아니라 국제정치, 외교 관련 특정사안에 대하여 북한당국이 인지하고 분석하는 방향으로 국제정세를 선전함으로써 당의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보도한다.⁶⁴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북한의 신문기사를 북한당국의 공식 입장의 대용물로

⁶² 김경모, “북한신문의 국제뉴스 내용분석 당 대외정책과 국제정세선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1권 (2005), p. 12.

⁶³ 김원태, “북한 로동신문의 언론이념과 대중설득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56권 (2010), pp. 258~259.

⁶⁴ 김경모(위의 논문, p. 45)의 연구는 북한 언론의 국제보도가 북한당국이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고 의식화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간주하고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게재된 사이버안보 관련 기사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신문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은 북한 언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신문이다. 『로동신문』은 당의 공식 기관지로 조선로동당 당원과 북한인민들만을 구독자로 하고 있으며⁶⁵ 북한의 가장 중요한 언론매체로 알려져 있다.⁶⁶ 『민주조선』 역시 북한당국의 내각 기관지로 기본 임무가 “당 정책 관철에 힘 있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⁶⁷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집중하는 보도의 내용과 목적에서 차이점이 일부 존재하지만 국제정세선전을 수행함에 있어 핵심 메시지가 당이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방향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언론사의 성격과 역할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⁶⁸ 둘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은 사실보도를 목표로 하는 객관적 저널리즘이 아닌 당의 입장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자기주장적인 저널리즘을 지향하기 때문에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당의 의견이나 입장을 명확하게 보도하고 있다.⁶⁹ 특히,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사설은 북한당국의 정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치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도 당국의 견해와 입장을 국내외적으로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당국이 당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정책담화 형식 중에 신문사설이 북한당국의 입장을 가장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⁷⁰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접근가능성이다. 두 신문 모두 원하는 기사를 디지털 자료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⁷¹

⁶⁵ 손대권·안슬기,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보도행태 및 전략적 함의: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기사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35권 제1호 (2017), pp. 69~70.

⁶⁶ 김영주,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보도 논조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10권 제4호 (2010), p. 86.

⁶⁷ 이기우, “북한의 통치기제로서 선전선동과 『로동신문』의 역할: ‘체제유지’와 ‘권력세습’과정에서의 기관성 분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p. 30~31.

⁶⁸ 김경모, “북한신문의 국제뉴스 내용분석 당 대외정책과 국제정세선전의 관계를 중심으로,” p. 43

⁶⁹ 주정화, “『로동신문』을 통해 본 김정은 정치스타일,”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2호 (2014), pp. 55~80.

⁷⁰ 현인애, “노동신문 사·논설을 통해서 본 북한 여성담론과 여성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p. 212.

⁷¹ 허재영 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 로동신문의 대응담론: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제51권 제5호 (2017), p. 117.

〈표 2〉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주요 특징

신문명	발행기관	성격과 편집 방향	창간일	발행주기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언론을 상징하는 절대적 권위의 당 기관지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하는 공식적 정책 선전지 외부에 자신의 입장을 선전하고 해명 및 발표함 당보로서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노선과 정책, 당의 결정을 알리고 조직 및 동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 	1945년 11월 1일	일간
민주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의 법령, 규정 및 국가의 정책을 해설하여 국가의 정책실행 동원에 이바지함 로동신문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행정 관련 기사가 비교적 많음 당 정책 관철에 동원하기 위해 주체사상 위업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본임무로 규정되어 있음 	1946년 6월 4일	일간

자료: 고유환 외, “북한 언론현황과 기능에 관한 연구(2012-08),”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pp. 91~93; 오윤정,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로동신문』 핵심협 관련 보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p. 38을 참조하여 재구성

〈표 3〉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서 추출한 기사제목 키워드, [북한어(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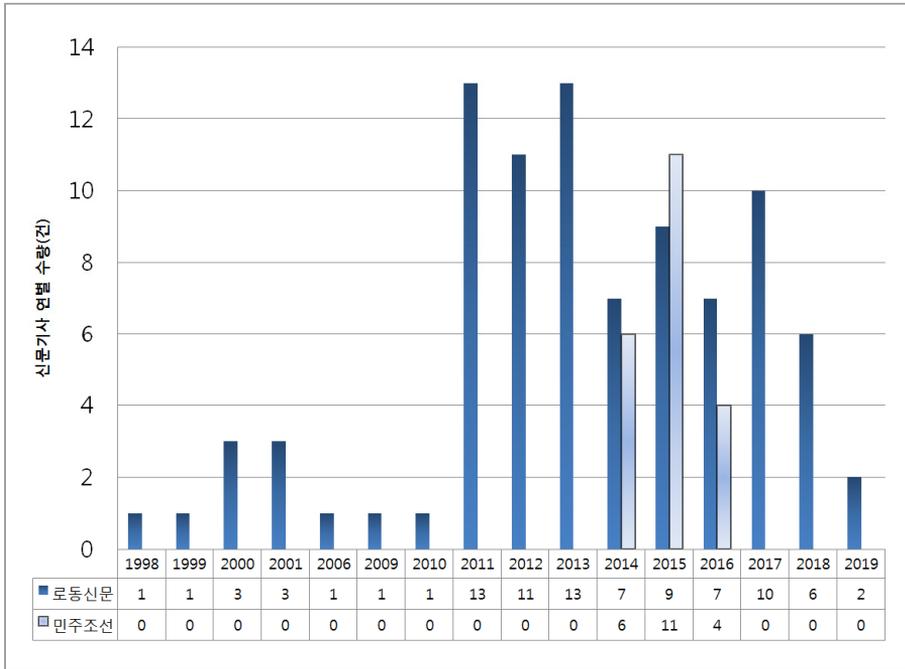
검색 키워드	추출 키워드
짜이버전(사이버전), 짜이버전쟁(사이버전쟁), 짜이버공격(사이버공격), 짜이버테로(사이버테러), 짜이버공간(사이버공간), 해킹(해킹), 해커(해커), 콤퓨터(컴퓨터), 인터넷(인터넷), 네트워크(네트워크), 스노우덴(스노든), 쏘닉픽처스(소니픽처스), 정보전(정보전), 전자전(전자전), 랜섬웨어(랜섬웨어), 스텝스네트(스텝스네트), 제5의 전장(제5의 전장), 한수원(한수원), 비루스(바이러스)	짜이버전(사이버전), 짜이버전쟁(사이버전쟁), 짜이버공격(사이버공격), 짜이버테로(사이버테러), 짜이버공간(사이버공간), 해킹(해킹), 콤퓨터(컴퓨터), 인터넷(인터넷), 네트워크(네트워크), 스노우덴(스노든), 쏘닉픽처스(소니픽처스), 비루스(바이러스)

자료: 저자작성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에서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신문 기사를 수집했다. 북한자료센터는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신문을 창간일로부터 현재까지 모두 디지털 형태로 소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창간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표 3〉에서 보듯이 본 연구는 사이버안보 관련 19개의 검색 키워드를 토대로 기사를 검색하였으며, 총 12개의 검색 키워드에서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이후 추출한 기사들 중 사이버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설 및 관련 기사를 선별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총 110건의 기사를 추출했다.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게재된 연도별 사이버안보 관련 기

사는 <그림 2>와 같다. 대부분의 사이버안보 관련 사설과 기사들이 『로동신문』(89건)을 중심으로 보도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민주조선』(21건)도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그림 2>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게재된 사이버안보 관련 기사 총 수량
(창간일~ 2019년 12월 31일)



자료: 저자작성

2. 자료분석: 정책담화 내용분석(NPF Content Analysis)

본 연구는 NPF 중시수준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방법론으로 이용한다. 내용분석은 담화의 표면적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에 담겨진 의미를 추론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론이다. 또한, 통계를 바탕으로 명확한 수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⁷² 사회과학의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나한

⁷² 박해경 외,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보수/진보 언론 간 정책 내러티브의 차이점 분석: 내러티브 정책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 『교육문제연구』, 제29권 제1호 (2016), p. 151.

(Elizabeth A. Shanahan)이 제시한 정책담화모형을 바탕으로 <표 1>과 같이 내용분석의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정보전달 기사를 제외하고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북한당국의 가치판단이 포함된 신문사설과 관련 기사를 이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표 3>의 키워드로 검색된 총 110 건의 기사 중 NPF의 내용분석 방법에 적용 가능한 77건(『로동신문』 66건, 『민주조선』 11건)의 기사를 연구데이터로 선별하였다.⁷³ 본 연구는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기사의 정책담화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당국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코딩 유무를 설정하였다. 먼저 담화요소는 (1)등장인물, (2)플롯, (3)해결책 및 대안, (4)증거로 분류하였다. 등장인물은 북한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와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를 파악하였다. 플롯은 북한당국이 사이버안보 담화를 어떠한 전략으로 이끌어 나가는지 살펴보았다. 플롯은 (1)쇠퇴와 (2)통제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는데 쇠퇴는 열세, 교착상태, 반대되는 진행으로 구분하였으며 통제의 경우 무력한 상태, 음모, 피해자 비난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이버안보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에 대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에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북한당국이 사이버안보 관련 기사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증거의 유형을 분류하여 코딩했다.

다음으로 담화전략에서는 북한당국이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현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1)인과관계와 (2)악의적 상대비방과 호의적 자기선전을 담화전략으로 선정하였다. 인과관계의 경우 스톤의 정의에 따라 기계적, 의도적, 우발적, 비의도적 인과관계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현실을 북한당국이 어떻게 재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악의적 상대비방과 호의적 자기선전의 경우 북한이 사이버안보와 관련하여 악당으로 묘사되는 국가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전략을 취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코딩을 통해 비율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념

⁷³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한 NPF 선행연구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통계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김상철의 연구가 있으며 65건의 문서를 분석하였다. 국외의 경우 McBeth et al.(2005)의 연구가 있으며 75건의 문서를 분석했다. 김상철·엄준용,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한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교육정치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6), pp. 127~150; McBeth et al., “The science of storytelling: Measuring policy beliefs in Greater Yellowstone,”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vol. 18 no. 5 (2005), pp. 413~429.

체계에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안보에 대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 2명이 코더가 되어 총 77개의 신문사설과 관련 기사를 코딩하였다. 본 연구가 분석한 77개의 기사의 리스트는 <부록 1>에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코딩의 한계를 극복하고 코더들 간의 코딩결과와 내적 합치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NPF를 학습하면서 해당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거친 후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선별한 77개의 신문기사 중 10건(약 13%)을 무작위로 선택한 후 예비검사(pilot test)를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코더들 간의 0.9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⁷⁴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NPF 변수의 범주와 코딩개요는 <표 4>와 같다.

<표 4> 정책담화모형(NPF) 변수 범주와 코딩개요

변수범주		기술 / 코딩개요	
담 화 요 소	등장 인물	영웅	영웅으로 묘사된 인물(국가)의 총 수
		악당	악당으로 묘사된 인물(국가)의 총 수
		피해자	피해자로 묘사된 인물(국가)의 총 수
	플롯	예 또는 아니오, 다음 범주로 코딩함 쇠퇴 (열세, 교착상태, 반대되는 진행) 통제 (무력한 상태, 음모, 피해자 비난)	
	해결책/대안	예 또는 아니오	
담 화 전 략	증거	예 또는 아니오, 다음 범주로 코딩함 주장을 지지, 2. 주장을 반박, 3. 사실적 근거	
	인과관계	예 또는 아니오, 다음 범주로 코딩함 1. 기계적 원인, 2. 의도적 원인, 3. 우연한 원인, 4. 의도하지 않은 원인	
	악의적 상대비방 호의적 자기선전	영웅으로 묘사된 인물(국가)의 전체 비율 악당으로 묘사된 인물(국가)의 전체 비율	
신념체계		예 또는 아니오, 사이버공간에 대한 신념 체계를 다음 범주로 코딩함. 1. 전쟁공간 2. 범죄공간 3. 미국의 패권공간 4. 기타	

자료: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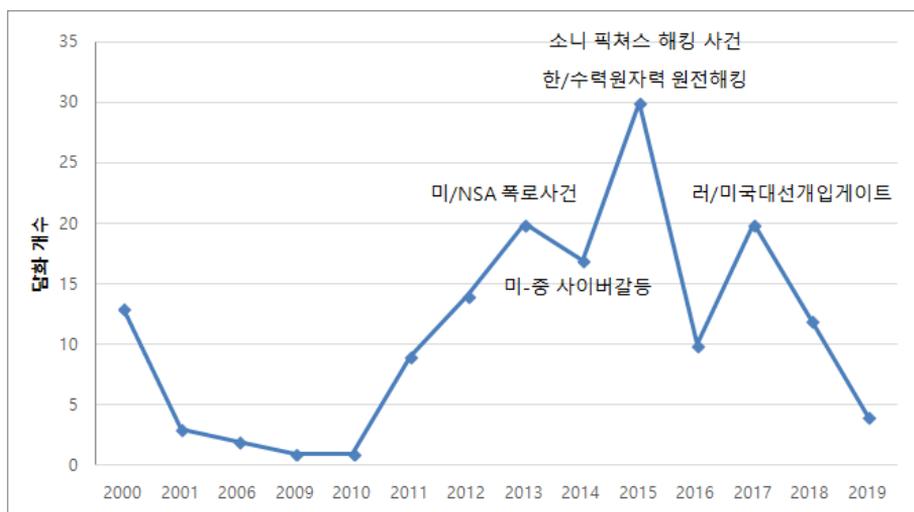
⁷⁴ Holsti(1969; 박해경,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보수/진보 언론 간 정책 내러티브의 차이점 분석: 내러티브 정책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는 코더들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0.9 이상의 신뢰도를 보여야 한다고 보았다. Krippendorff(2012; 김상철·엄준용,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한 서울시 무상급식정책”)는 0.7 이상이면 높은 내적 합치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는 『로동신문』 66건과 『민주조선』 11건으로부터 총 156개의 담화를 코딩하였다. 북한이 선전매체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소식을 처음으로 보도한 시점은 1998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이버안보에 관한 당국의 정책적 입장을 담고 있는 정책담화는 2000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까지는 사이버 전쟁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컴퓨터망 습격’, ‘컴퓨터복당소동’, ‘컴퓨터 전쟁’ 등이 사용되었다. 이후 관련 기록은 2006년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며 2009년이 되어서야 국가 주도의 사이버공격을 주제로 한 사실이 등장한다. 이후 사이버전쟁 관련 정책담화는 2010년부터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5년, 2013년, 2017년, 2014년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선전매체는 2015년 남한에서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해킹 사건과 소니 픽처스 해킹 공격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의 미국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 민간인 감시 행태 폭로 사건, 2017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게이트, 2014년 미-중 사이버갈등에 주목하였다.

〈그림 3〉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사이버안보 관련 담화개수



자료: 저자작성

가. 담화변화의 양상: 방관자 - 적극대응

북한 언론의 사이버안보 담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북한의 정책담화는 초기에는 방관자적 입장으로 사이버안보 관련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달하면서 북한당국의 평가만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외부의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남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소행을 의심하였지만 북한당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나 대응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북한당국이 외부로부터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받는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2011년 4월 대한민국의 농협 디도스 공격과 8월 북한 해커들이 국내 유명 게임회사를 해킹한 사건이다(『로동신문』, 2011년 8월 16일, 6면). 해당 담화 속에서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남한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 이후로도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으로 밝혀진 사이버공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13년에서 3.20 사이버 테러와 6.25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모든 대한민국 언론이 공격의 배후를 북한으로 지목하고 북한당국을 비판하였을 당시에도 북한은 무대응속에 오히려 미-중 사이버안보 갈등과 스노든 사건을 매우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로동신문』, 2013년 7월 6일, 6면, 『로동신문』, 2013년 7월 8일, 6면). 이러한 북한당국의 방관자적 태도가 바뀌고 자신들을 공격자로 지목한 사이버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게 된 시점은 2015년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과 대한민국의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해킹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이다. 소니해킹사건의 경우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총 5번에 걸쳐(『로동신문』, 2015년 1월 29일, 6면, 『로동신문』, 2월 27일, 6면, 『민주조선』, 2015년 2월 15일, 4면, 『민주조선』, 2015년 3월 7일, 4면, 『민주조선』, 2016년 3월 22일, 5면) 반박 기사를 내면서 전면적으로 자신들의 소행을 부인하였다. 이는 관련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만큼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당시 북한소행으로 의심받는 대부분의 사이버공격 사건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당국의 이러한 적극적 반박은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에 따르면 소니 픽처스 해킹은 미국내부에서 일어났으며 기술적·공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미국이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북한 해킹설을 증명한 것이 의심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한수원 원전 해킹 사건의 경우도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지면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남한 언론의 북한 소행 추정 기사들을

반박했다(『민주조선』, 2015년 3월 27일, 6면, 『로동신문』, 3월 28일, 5면). 북한당국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김숙향>표기의 오류, IP(Internet Protocol) 주소의 오류, 북조선식 표기의 오류, 해커 근거지의 오류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박근혜 정부의 통치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라고 주장하였다.

“...<원전해킹>의 <북소행>설에는 우선 더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있는 저들의 통치기반을 유지하고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비렬한 기도가 비껴 있다...” (『민주조선』, 2015년 3월 27일, 6면)

이후로 북한당국은 모든 사건은 아니지만 평창 동계 올림픽 해킹사건이나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사태와 같이 북한소행으로 보도되는 사이버공격 관련 기사에 대하여 과거와 달리 비교적 빠르게 반박 기사를 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로동신문』, 2018년 3월 7일, 6면). 특이한 점은 과거에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 사이버공격 사건에 대한 보도 역시 최근에는 반박 기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로동신문』, 2017년 6월 6일, 6면). 한편,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의 사이버안보 관련 기사는 남한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담화형식을 취하는 반면, 문재인 정부 이후 사이버안보 관련 기사에서는 남한정부를 비판하는 담화형식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의 사이버안보 담화는 남한 집권정부의 북한당국에 대한 태도 혹은 남한정부와 북한당국의 관계에 따라 담화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북한당국의 소행으로 알려진 사이버공격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은 <부록 2>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2. 정책담화모형(NPF) 내용분석

가. 연구목적 1: 사이버안보 정책담화의 구성방식

본 연구는 북한 일간지에 기록된 정책담화의 요소와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인 북한당국이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담화를 어떻게 구성하여 전달하는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표 5>는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나타난 사이버안보 관련 담화의 내용분석을 요약한 결과이다. 먼저, 북한담화의 등장인물에는 악당과 피해자가 주로 등장한다. 악당으로 가장 많이 묘사되는 행위자는 미국이었으며 다음으로 남한정부, 일본, 남한의 보수정당, 이스라엘, 기타 순이었다. 북한당국의 담화에서 미국은 사이버공간에서 자신들의 안보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적 행위를 무자비하게 일삼고 다른 국가들을 사이버공격으로 탄압하는 국가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담화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사이버공간에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장본인은 과연 누구인가, 미국이다.”
(『로동신문』, 2018년 1월 12일, 6면)

“미제와 일본반동들, 남조선괴뢰패당들은 아직도 침략적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컴퓨터 모의전쟁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다.”
(『로동신문』, 2013년 4월 20일, 6면)

미국 다음으로 악당으로 많이 묘사된 대한민국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특정정부(예: 남조선 집권세력) 혹은 특정정당(예: 남조선괴뢰패당, 남조선 한나라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악당으로 묘사하였다. 한편, 북한의 담화에서 피해자로 가장 많이 묘사되는 행위자는 북한 자신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이란, 러시아, 중국 순이었다. 북한당국은 악당으로 묘사된 국가들이 정치적 이유로 북한을 탄압하고 있다고 묘사한다. 이러한 담화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 행위를 거리낌 없이 강행하고 있다. 그 주요대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이다.” (『로동신문』, 2015년 11월 19일, 6면)

그 외 담화에서 주로 미국과 갈등이 있거나, 반미성향의 국가들, 또는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인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북한이 전통적 안보질서 내에 존재해왔던 국가 간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사이버안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 시켜 준다. 담화에서 미국과 일본이 사이버공격의 피해자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이들 국가가 사이버공간을 자본주의 목적 실현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본다(『로동신문』, 2014년 9월 28일, 6면). 영웅으로 묘사된 행위자는 담화의 등장인물 중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담화에서는 러시아가 영웅으로 묘사된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이란, 중국, 북한 순이었다. 위의 국가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영웅으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영웅으로 서술될 때 이들 국가는 주로 미국의 사이버 패권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서술된다.

“...로씨야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스노우텐을 범죄자로 낙인한 미국에 돌려보내지 않은 것이 인도주의 적견지에서 보아도 옳은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동신문』, 2013년 8월 12일, 6면)

“.... 중국이 결코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중국은 미국의 사이버전에 대응한 강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죄행을 폭로하는 여론전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로동신문』, 2014년 6월 18일, 6면)

북한의 사이버안보 담화는 대부분 악의적 상대비방 전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세계 국가들로 인해 현재 사이버공간의 안보질서가 점차 부정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이버안보 관련 북한의 담화 플롯은 대부분 점차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열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 서방세계의 힘과 행위를 악의적으로 과장하고 부정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 ‘적’이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도 미국과 서방세계는 여전히 물리쳐 싸워야 할 부정적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담화는 사실을 왜곡하는 음모론적인 플롯을 가장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소행으로 알려진 사이버공격 사건의 경우 해외 언론의 보도를 전달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상은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미국 정보보안업체 맥아피의 창업자인 존 맥아피가 <쏘니 픽처스>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조선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그 사이버공격은 미국의 자유주의성향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하면서.....<쏘니픽처스>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미국자체의 문제라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었다.” (『로동신문』, 2015년 1월 29일, 6면)

북한은 사이버안보 영역의 주요 문제를 빠른 군사화, 미국의 사이버공간 패권야욕, 반미국가들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보고 있다. 담화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으로써 군사화에 대한 경고(『로동신문』, 2014년 9월 28일, 6면), 악당으로 묘사된 등장인물들에 대한 우려와 경고(『로동신문』, 2014년 5월 9일, 6면), 사이버공간에서 국가 안전보장의 필요성(『로동신문』, 2018년 1월 12일, 6면), 국제강령 수립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로동신문』, 2011년 9월 29일, 6면).

〈표 5〉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사이버안보 관련 담화 내용분석 결과

변수범주		코딩 결과 (%)	합계 (%)	
담화 요소	등장 인물	영웅	러시아 (29), 이란 (21), 중국 (21), 북한 (14), 기타 (15)	14 (100)
		악당	미국 (50), 대한민국 정부 (17), 일본 (11), 남한 보수정당 (7), 이스라엘 (5), 기타 (9)	90 (100)
		피해자	북한 (27), 이란 (11), 러시아 (10), 중국 (7), 미국 (7), 일본 (6), 기타 (32)	88 (100)
	플롯	쇠퇴	열세 (98), 교착상태 (2)	51 (100)
		통제	음모 (90), 피해자 비난 (10)	67 (100)
	해결책, 대안		-	94 (100)
증거		주장을 지지 (42), 사실적 근거 (40), 주장을 반박 (18),	128 (100)	
담화 전략	인과관계	의도적 원인 (76), 의도하지 않은 원인 (18) 기계적 원인 (4), 우연한 원인 (1)	71 (100)	
	악의적 상대비방, 긍정적 자기선전	악의적 상대비방 (87), 긍정적 자기선전 (13)	104 (100)	
신념체계		미국의 패권공간 (42), 전쟁공간 (37) 범죄공간 (14), 기타 (7)	43 (100)	

자료: 저자작성

나. 연구목적 2: 사이버공간을 바라보는 북한의 신념체계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질문은 북한이 사이버공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는 무엇인가? 이다. 북한이 사이버공간에 가지는 기초적 인식은 선진과학기술발전으로 이룬 공동 번영의 공간이다(『로동신문』, 2015년 6월 9일, 6면, 『로동신문』, 2018년 12월 26일, 6면). 그러나 미국이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공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묘사한다. 북한은 미국이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의 내정간섭, 반미국가에 대한 공격과 감시, 선제적 사이버공격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사이버공간이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격적인 행동이 촉매제가 되어 전 세계 사이버공간이 빠르게 군사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제반 사실들이 보여주듯이 미국은 그 누구보다 먼저 국가급의 싸이버공격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싸이버공간을 전쟁마당으로 전면시킨 주범이다.” (『로동신문』, 2015년 11월 19일, 6면)

“...사이버공간에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장본인은 과연 누구인가, 미국이다...미국은 사이버공간을 주요전장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패권을 노리고 있다. 심각한 것은 미국의 이러한 무분별한 책동이 세계적 범위에서 사이버공간의 군사화를 다그치는 촉매제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로동신문』, 2018년 1월 12일, 6면)

한편, 북한은 사이버안보 질서를 악당과 피해자의 이분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악당으로 묘사되는 행위자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전달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담화에서 악당으로 가장 많이 묘사되는 행위자는 미국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미국이 군사화를 빠르게 촉진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을 패권 장악을 위한 새로운 전쟁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북한이 전통적 안보갈등을 바라보는 시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이는 냉전 시대의 서방세계에 대한 이념적 적대감을 사이버공간에도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사이버 선제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사이버공간에서 다른 나라들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위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씌먹기 위해서이다.”(『로동신문』, 2015년 7월 17일, 6면)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비판하면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나 도발 시 사이버공격으로 맞서겠다고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상용무력에 의한 침략전쟁을 가용한다면 우리식의 사용전쟁으로, 핵 무력에 의한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식의 핵타격전으로, 사이버전에 의한 붕괴를 시도한다면 우리 식의 사이버전으로 미국의 최종멸망을 앞당겨오자는 것이 우리의 단호한 선택이다.” (『민주조선』, 2015년 2월 27일, 5면)

주목할 점은 북한당국의 담화전략은 매우 호전적인 것인 반면, 사이버안보 질서에서 북한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3>과 <표 5>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북한당국은 2015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이 발생이전까지는 외부의 비판과 의심에 대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이후에는 열세와 음모플롯이 주를 이루는 방어적인 담화를 생산해 왔다. 비록 미국의 선제공격 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긴 하지만, 북한이 사이버안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북한 외부에서 발생한

주요 사이버공격 사건들, 사이버공격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들의 인식변화와 국가전략 변화 등을 전달함으로써 전 세계 사이버안보질서의 경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이버안보 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을 견제하려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이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기존 국제관계에서 핵무기를 국력과시용과 적대국 위협용으로 과장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75,76}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내부의 사이버안보 담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당국이 국제 사이버안보 질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책담화모형(NPF)을 적용하여 북한의 대표적 언론매체이자 북한당국의 기관지로 알려져 있는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기사 중 담화형식으로 분류 가능한 77건의 사이버안보 관련 사설과 기사에서 총 156개의 정책담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악당과 피해자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분법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악당으로 묘사되는 행위자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전달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담화전략을 구사하였다. 상대국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책임소재를 돌린 사이버공격 사건들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대부분은 부인해 왔다. 이는 북한의 정책담화에도 나타나는데, 상대국을 대부분 악당으로 묘사하고 자신과 우방국을 피해자로 묘사하며 상대국의 자신에 대한 비판 또는 주장을 의도를 가진 음모론으로 비틀어 역으로 공격한다. 또한, 북한은 빈번하게 과학적 또는 사실적 근거를 정책담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한다. 북한의 담화에서 악당은 주로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세계와 남한정부이다. 북한은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이버공간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며 이것이 사이버공간의 군사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냉전 이데올로기적 적대감을 사이버공간에도 동일하게 투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북한당국의 태도는 기존의 전통적 안보영역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자신

⁷⁵ 김운영,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대응 방안 연구: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2016), p. 255.

⁷⁶ “미 “북 핵무기 60기 보유”...핵전문가 “위험한 과장”, 『한겨레신문』, 2017.8.9.,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806196.html>> (검색일: 2020.3.15.).

들의 전쟁역량을 과시하거나 과장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북한은 사이버안보 관련 의제를 직접적으로 선도하려 하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안보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을 견제하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정책담화를 활용하였다. 즉, 북한은 자신들의 사이버역량을 체제선전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며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본 연구의 분석과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먼저, 북한 사이버안보연구 관점에서 본 연구는 2차 자료 중심의 기존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북한당국의 기관지인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정책담화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인식과 태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북한학연구 관점에서 본 연구는 NPF라는 일반화되고 체계적인 연구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북한의 언론매체를 이용한 기존연구들은 서술적·해석적 접근의 연구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방식과 NPF의 주요 차이점은 NPF는 과학적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발견하기 위한 경험적 관찰이라는 것이다.⁷⁷ 기존의 북한연구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하지 않고 연구되는 경향이 컸다. NPF의 사용은 북한연구가 일반적 정책분석틀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특수한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북한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행동패턴을 파악하여 향후 전략적 대응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록,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사이버안보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시작이지만, 정책적 결과와 유용성을 향상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안보 연구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델을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연구의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사이버공간과 국제 사이버안보 질서에 대한 북한당국의 이해와 인식이 어떻게 정책결정으로 이어지는지, 핵 담화와 사이버안보 담화를 비교하여 북한이 각각 어떠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북한안보전략 분석을 위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제출: 5월 6일 ■ 심사: 5월 6일 ■ 채택: 5월 22일

⁷⁷ Crow, D., & Jones, M., "Narratives as tools for influencing policy change," *Policy & Politics*, vol. 46 no. 2 (2019), p. 220.

참고문헌

1. 단행본

- Stone, Deborah.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2nd edition. New York: W W Norton & Co Inc, 1997.
- Holsti, O. R..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69.
- Krippendorff, K..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12.

2. 논문

- 강정호·김희동·김순수·유진철. “국의 주요국과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전략 및 기술 비교분석을 통한 대응 방향.”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3권 제4호, 2016.
- 김경모. “북한신문의 국제뉴스 내용분석 당 대외정책과 국제정세선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1권, 2005.
- 김두현.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분석과 대응 방안 고찰.”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2호, 2014.
- 김상철·엄준용.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한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교육정치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6.
- 김원태. “북한 로동신문의 언론이념과 대중설득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14권 제3호, 2010.
- 김영주.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보도 논조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10권 제4호, 2010.
- 김윤영.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대응 방안 연구: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2016.
- 김인수·크마르마. “북한 사이버전 수행능력의 평가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 김원태. “북한 로동신문의 언론이념과 대중설득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56권, 2010.
- 김호중·김종하. “대북 사이버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사이버전 대비를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제18권 제3호, 2018.
- 박노형·박주희. “미국이 행위자의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국가책임법상 귀속: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93호, 2019.
- 박해경·유은지·강민수·홍세영·변기용.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보수/진보 언론 간 정책 내러티브의 차이점 분석: 내러티브 정책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 『교육문제연구』. 제29권 제1호, 2016.
- 박휘락.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 전략.” 『전략연구』. 제57호, 2013.
- 배달형. “국가 군사 전략급 수준에서 북한 사이버위협과 한국군의 대응 방향.” 『전략연구』. 제52권, 2011.

- 손대권·안슬기.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보도행태 및 전략적 함의: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기사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35권 제1호, 2017.
- 신충근·이상진.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전략 분석 및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제13권 제4호, 2013.
- 엄응용·김효진.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전략.”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2호, 2018.
- 오윤정.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로동신문』 핵실험 관련 보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 이기우. “북한의 통치기제로서 선전선동과 『로동신문』의 역할: ‘체제유지’와 ‘권력세습’과 정에서의 기관성 분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대성·안영규·김민수.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한 분석과 전망.” 『융합보안논문지』. 제16권 제5호, 2016.
- 이정석·이수진.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방 사이버전 수행 발전방향.”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2권 제4호, 2015.
- 임종인·권유중·장규현·백승조. “북한의 사이버전력 현황과 한국의 국가적 대응전략.” 『국방정책연구』. 제29권 제4호, 2014.
- 정민경·임종인·권현영.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15권 제1호, 2016.
- 정영도·정기석.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16권 제6호, 2016.
- 정준현.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총력적 대응 체계를 위한 법제방향.” 『성균관법학』. 제28권 제4호, 2016.
- 정태진. “북한사이버테러능력 변화와 대응전략 방안연구.” 『한국테러학회보』. 제11권 제3호, 2018.
- 조성렬.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 2013.
- 주정화. “『로동신문』을 통해 본 김정은 정치스타일.”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2호, 2014.
- 차정미.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 사이버위협의 부상: 한국 사이버안보에의 함의.” 『통일연구』. 제23권 제1호, 2019.
- 최선우·류채영.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6권, 2012.
- 한중현. “정책담화모형을 통한 정책갈등연구: 에너지전환정책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글로벌 융합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 허재영·표운신·조화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 로동신문의 대응담론: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제51권 제5호, 2017.
- 현인애. “노동신문 사·논설을 통해서 본 북한 여성담론과 여성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 황지환. “북한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반도: 비대칭적, 비전통적 갈등의 확산.” 『동서연구』. 제29권 제1호, 2017.

- Crow, D., & Jones, M. "Narratives as tools for influencing policy change." *Policy & Politics*. vol. 46 no. 2, 2019.
- Feakin, T., "Playing blind-man's buff: estimating North Korea's cyber capabi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2 no. 2, 2013.
- Fisher, W. R., "The narrative paradigm: In the beginning."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5 no. 4, 1985.
- Haggard, S., & Lindsay, J. R., "North Korea and the Sony hack: Exporting instability through cyberspace." *Analysis From the East-West Center*, No. 17, 2015.
- Heikkila, T., Weible, C. M., & Pierce, J. J.. "Exploring the policy narratives and politics of hydraulic fracturing in New York." in *The science of stories: Applications of narrative policy framework*. Michael D. Jones, Elizabeth A. Shanahan, & Mark K. McBeth.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 Jones, Michael D., & Mark K. McBeth.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Clear Enough to Be Wrong?" *Policy Studies Journal*. vol. 38 no. 2, 2010.
- McBeth, M. K., Shanahan, E. A., & Jones, M. D.. "The science of storytelling: Measuring policy beliefs in Greater Yellowstone."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vol. 18 no. 5, 2005.
- McBeth, M. K., Hathaway, P. L., Tigert, L. E., & Sampson, L. J.. "Buffalo tales: interest group policy stories in Greater Yellowstone." *Policy Sciences*. vol. 43 no. 4, 2010.
- Sabatier, P. A., & Jenkins-Smith, H. C..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 Assessment." in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Sabatier P. A..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9.
- Sharp, T.. "Theorizing cyber coercion: The 2014 North Korean operation against Son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0 no. 7, 2017.
- Shanahan, E. A., McBeth, M. K., & Hathaway, P. L. "Narrative policy framework: The influence of media policy narratives on public opinion." *Politics & Policy*. vol. 39 no. 3, 2011.
- Shanahan, E. A., Jones, M. D., McBeth, M. K., & Lane, R. R. "An angel on the wind: How heroic policy narratives shape policy realities." *Policy Studies Journal*. vol. 41 no. 3, 2013.
- Shanahan, E. A., Jones, M. D., & McBeth, M. K. "How to conduct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study."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5 no. 53, 2018.
- Whyte, C. "Ending cyber coercion: Computer network attack, exploitation and the case of North Korea," *Comparative Strategy*. vol. 35 no. 2, 2016.

3. 기타자료

『로동신문』.

『민주조선』.

『한겨레신문』.

고유환·이주철·홍민·최효정. “북한 언론현황과 기능에 관한 연구(2012-08).”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Jun, J., LaFoy, S., & Sohn, E. “North Korea’s cyber operations: Strategy and responses.” Center for Strategies & International Studies. December, 2015.

〈부록 1〉 『로동신문』, 『민주조선』 목록 (창간일 - 2019년 12월 31일)

날짜	날짜	신문	작성자
20000224	복닥소동을 일으키는 컴퓨터망습격	로동신문	원경호
20000324	서방세계의 컴퓨터복닥소동	로동신문	조성철
20000521	포성없는 컴퓨터전쟁	로동신문	조성철
20001201	커다란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는 해커행위	로동신문	원경호
20010625	일본을 겨냥한 컴퓨터 비루스 사자벌레	로동신문	조성철
20011211	미국의 국가위기로 등장한 싸이버테로행위	로동신문	본사기자
20060322	성행하는 컴퓨터범죄	로동신문	조성철
20090703	위험한 단계에 이른 싸이버전쟁 음모	로동신문	박철준
20100125	막이오른 싸이버전	로동신문	조성철
20110720	로골화되는 싸이버전쟁음모	로동신문	송영석
20110816	싸이버테로왕초의 파렴치한 생역지	로동신문	심철영
20110929	국제적우려를 자아내는 싸이버전	로동신문	라명성
20111012	미국의 싸이버전쟁계획을 폭로	로동신문	본사기자
20111212	싸이버테로범죄에 대한 괴뢰경찰의 수사결과 비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11217	싸이버테로는 한나라당의 조직적범행	로동신문	리성호
20120117	싸이버테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	로동신문	본사기자
20120121	흐지부지할수 없는 싸이버테로사건	로동신문	라설하
20120204	위험천만한 네트워크공간작전전략	로동신문	본사기자
20120221	싸이버공격 위협론은 재침기도의 발로	로동신문	리학남
20120706	포성없는 싸이버전쟁	로동신문	조성철
20120709	일본의 사이버전쟁책동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20805	적들의 사이버공격을 물리칠것이라고 언명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20910	싸이버전, 전쟁연습강화책동	로동신문	본사기자
20121010	싸이버전쟁준비에 열을 올리는 침략세력들	로동신문	본사기자
20130104	미국의 사이버공격 격퇴	로동신문	본사기자
20130205	발광적인 싸이버전 전쟁 책동	로동신문	본사기자
20130220	싸이버공간을 어지럽히는 검은 그림자	로동신문	라명성
20130420	실전을 반영할 수 없는 컴퓨터모의전쟁	로동신문	김경철
20130426	인터넷공간까지 대결마당으로	로동신문	라설하
20130706	스노우덴사건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로동신문	라명성
20130706	싸이버전강화 책동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30708	싸이버문제로 더욱 표면화 되는 중미마찰	로동신문	라명성
20130805	미국의 사이버공격음모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30812	스노우덴문제로 격화되는 로미갈등	로동신문	배금희
20130915	싸이버전쟁은 누가 몰아오는가	로동신문	라명성
20140509	로골화되고있는 미국의 싸이버전쟁책동	로동신문	신경섭
20140514	본격적인 싸이버전책동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40523	미국과 일본의 싸이버전쟁준비책동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20140618	싸이버공간을 둘러싼 중미아시아의 마찰	로동신문	김수진
20140624	해킹문제로 불거지는 비난전	로동신문	배금희

날짜	날짜	신문	작성자
20140928	국제적인 우려거리-사이버범죄의 성행	로동신문	박송영
20141210	사이버공간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민주조선	신명남
20150113	범죄목적달성을 위한 북해킹설	민주조선	남천웅
20150129	황당무계한 조선사이버공격설	로동신문	리경수
20150207	우리 식의 핵타격적전, 사이버전으로	민주조선	허철준
20150215	대조선 사이버테러작전을 걷어치우라	민주조선	남천웅
20150227	첫 국가급사이버공격을 감행한 도발의 원흉	로동신문	리경수
20150307	서서히 벗겨지는 북해킹설의 흑막	민주조선	남천웅
20150327	남조선당국이 확산시키고 있는 원전해킹사건에 대한 북한소행설의 진상을 밝히다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20150328	남조선당국이 확산시키고 있는 <원전해킹>사건에 대한 <북소행>설의 진상을 밝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터넷트중앙연구소 진상공개장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50609	사이버테러행위는절대로용납될수없다.	로동신문	채일출
20150717	사이버공간에서의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한 책동	로동신문	김국철
20150720	인권유린자들을 폭로하는 불법해킹사건	로동신문	장윤남
20150806	불법해킹사건의 진짜 주범은 현 정권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20151119	사이버전쟁의 서막을 열어놓은 범죄대국	로동신문	림원
20151214	조소를 자아내는 <북해킹의혹>설	로동신문	김철남
20151230	사이버공간을 패권의 영역으로 삼지 말라	민주조선	김흥휘
20160313	불순한 기도가 깔린 사이버테러방지법 조작책동	민주조선	강금철
20160322	사이버테러위협설을 광고하는 속심	로동신문	장임향
20160322	만천하에 드러난 쓰니픽쳐스 해킹사건의 모략적 진상	민주조선	본사기자
20160619	사이버테러장본인들의 파렴치한 나발	로동신문	리호진
20160629	대결과 모략능수들의 사이버테러 소동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61025	미국의 사이버공격위협 비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61105	사이버공격사건을 둘러싸고 심화되는 로미모순	로동신문	김수진
20170105	사이버공격사건으로 격화되는 로미대결	로동신문	안철권
20170122	해킹문제로 악화되는 로미관계	로동신문	김수진
20170124	사이버테러왕초의 닉두리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70517	세계적범위에서 동시다발적인 사이버공격 사건 발생, 150여개 나라들에서 피해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70606	사이버테러장본인들이 벌리 서푼짜리 광대극	로동신문	라영국
20170616	로씨야 미국선거구들에 대한 사이버공격설을 배경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70703	우습해지는 사이버공격행위	로동신문	본사기자
20170917	발광적으로 감행되는 미국의 사이버전쟁책동	로동신문	안철권
20180112	누가 사이버공간의 군사화를 부추기는가	로동신문	김승걸
20180217	내부교란을 노린 인터넷기동부대창설책동	로동신문	라명성
20180307	사이버테러장본인들의 유치한 광대놀음	로동신문	리성호
20181226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사이버범죄	로동신문	림원
20190716	국가간 대결장으로 되어가는 사이버공간	로동신문	리효진

〈부록 2〉 북한소행으로 알려진 주요 사이버사건에 대한 『로동신문』의 담화

년도	사건	주요내용	북한 대응	주요내용
2003	1.25 인터넷대란	마이크로소프트사 SQL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슬래머 웹으로 인해 한국의 주요 인터넷망이 마비됨	무	-
2009	7.7 디도스 공격	2009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과 대한민국의 주요 정부기관, 은행, 방송사 등의 주요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마비됨	유	“...피뢰패당은 집권 후 현재까지 우리가 <사이버공격>으로 그 무슨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별의별 모략을 다 꾸며내고 있다...<GPS전파교란사건>,<7.7전산대란>, <인론매체 인터넷 마비 사건>..... 등을 비롯하여 피뢰패당이 조작해낸 모략극은 수없이 많다. (『로동신문』, 2016년 3월 13일, 6면)
2010-2012	GPS 교란	2010년을 시작으로 3년간 3차례에 걸쳐 GPS 전파 교란이 발생함. 이로 인해 한국이동통신 기지국을 포함하여 민·군 장비 GPS 수신기에서 혼선을 유발시켜 피해를 입음	유	“...피뢰패당은 집권후 현재까지 우리가 <사이버공격>으로 그 무슨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별의별 모략을 다 꾸며내고 있다...<GPS전파교란사건>,<7.7전산대란>, <인론매체 인터넷 마비 사건>..... 등을 비롯하여 피뢰패당이 조작해낸 모략극은 수없이 많다. (『로동신문』, 2016년 3월 13일, 6면)
2011	3.4 디도스 공격	한국의 주요 포털, 공공기관, 국방부, 금융기관 등 총 40개의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이 발생함	유	“...피뢰패당은 집권후 현재까지 우리가 <사이버공격>으로 그 무슨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별의별 모략을 다 꾸며내고 있다...<GPS전파교란사건>,<7.7전산대란>, <인론매체 인터넷 마비 사건>..... 등을 비롯하여 피뢰패당이 조작해낸 모략극은 수없이 많다. (『로동신문』, 2016년 3월 13일, 6면)
2011	농협 전산망 마비	농협은행의 전산망에 있는 자료가 대규모로 손상되어 전체 및 일부 서비스 이용이 마비됨	유	“...지난 4월 남조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금융 컴퓨터망이 사이버 공격으로 통째로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정보원과 검찰을 동원하여 <합동조사> 놀음을 벌여놓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했던 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로동신문』, 2011년 8월 16일, 6면)

년도	사건	주요내용	북한 대응	주요내용
2013	3.20 사이버테러	한국의 주요 방송·금융 6개사의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함	유	“...2013년 3월 20일 남조선전역에 대혼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자 박근혜당은 사건을 <3.20 해킹공격사건>이라고 명명하고 <북소행>이라고 고이대면서 그것을 더욱 여론화할 심산밑에 수사놀음을 벌여놓았다. <후이즈>라는 이름을 가진 국제해킹단체는 남조선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공개하면서 괴뢰파당을 조소하였다.” (『로동신문』, 2017년 6월 6일, 6면)
2013	6.25 사이버 테러	청와대 홈페이지를 포함한 정부의 주요 기관과 언론사, 정당 등이 사이버 공격을 받음	무	-
2014	소니픽쳐스 해킹	소니 픽쳐스 엔터테인먼트가 김정은을 소재로 다룬 영화 '더 인터뷰'의 예고편을 공개 한 이후 회사 관계자들의 이메일, 개인정보 유출, 미공개 영화 본편의 복사 등의 해킹공격을 받음	유	“...오버마정권은 <쓰니픽쳐스>에 대한 공격자들이 미국내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공격했다고 황성수설 하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일토당토않은 궤변에 불과하다.” (『로동신문』, 2015년 2월 27일, 6면)
2014-2015	한국 수력원자력 해킹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도면과 운전법 등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터넷에 유출됨	유	“...이러한 공지에서 벗어나보려고 또다시 우리를 길고든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터넷중양연구소는 이번 사이버공격사건의 경위와 박근혜파당이 돌리고 있는 북소행실이 추구하는 간교한 흑마의 진상을 밝히기로 하였다.” (『로동신문』, 2015년 3월 28일, 5면)
2017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공격	2017년 5월 12일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어 전 세계 150여국에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킴	유	“..적대세력들이.....<랜섬웨어> 사이버공격사건을 <북의 소행>이라고 떠들었다가 그 모략적진상이 밝혀져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은 대표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로동신문』, 2018년 3월 7일, 6면)
2018	평창올림픽 사이버 공격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당시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당시 올림피 관련 조직과 한국 정부기관, 민간업체가 피해를 입음	유	“.....얼마전에도 제23차 겨울철 올림피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컴퓨터 수백대가 해킹당한 사건을 우리의 소행으로 몰아가려다가 그 내막이 어지럽게 없이 폭로되어 또다시 세상 사람들의 조소거리가 되었다.” (『로동신문』, 2018년 3월 7일, 6면)

Abstract

Cyber Security through the lens of North Korea: Using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to study newspaper messages in North Korea

Kim, Geunhye and Park, Kyudong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how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terprets cyber security world by analyzing policy narratives in North Korean newspaper articles. Using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NPF), this paper draws on data on editorial and news release from Rodong Sinmun and Minzu Choson. Results show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ends to tie their story to villain and victim in cyber security world. They also tend to justify their stance by overstating the power of their opponent. North Korea's view of cyber security does not show much difference from ideology of the Cold War. Howev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generate a narrative for the purpose of leading cyber security agenda but for keeping traditional world powers in check.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investigates North Korean cyber security discourse and can provide primary data for taking systematic measures against North Korea's cyber security strategies.

Key Words: North Korea, Cybersecurity, Rodong Sinmun, Minzu Choson, Narrative Policy Framework (NPF)